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 시작과 끝, 희망을 말하자

천 득 염
전남대 교수·건축역사학 회장

얼마 전 새해의 다짐을 한 것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감할 때가 다가온다. 이럴 때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또 다른 해를 맞게 되니 무언가 숙연해진다. 특히 시간의 빠름은 나이에 비례하여 느낀다고 하니 우리처럼 나이 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런 것 같다.

성경의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였는데 왠지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크게는 나랏일에서부터 작게는 개인의 일까지 시작은 크고 희망을 말하지만 끝은 미약하고 아쉬움이 남게 마련이다. 특히 올해는 사람과 사람, 정파와 정파, 국가와 국가 사이가 더욱 그런 것 같다.

인간사에서는 사랑과 이해, 희망보다는 미움과 오해, 좌절이 더욱더 많은 것 같다. 하찮은 일에 분노하거나 낙담하여 죽이거나 스스로 자기의 생을 거두는 경우를 자주 본다.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여념 없이 생존해 가고 있는 필부들의 일상을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는 화두에서 큰 의미를 느낄 수 있다.

노력하면 무언가 성취되어야 함에도 도무지 이룸이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미래가 불안하다고 푸념한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주는 자보다 바라는 자가 더 늘어만 나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입시공부가 힘들고 취업이 어려워 하소연하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눈에도 갑갑하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그 얘기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철도 문제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리는 형국이다. 힘을 가진 집단과의 대화는 도무지 뚫리지 않아 막혀있고, 그렇다고 신선한 아젠다를 내세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지 못하고 있음도 답답하다. 막힌 자와 뚫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정치학자가 아닌 백면서생인 내가 보아도 한국을 둘러싼 각국의 쟁패도 심각하다. 다들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질서와 공익은 사라진 것 같다. Korea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3대 세습이나 패륜적 상황은 상상이 안 되고 부끄럽기도 한다.

남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일본도 있다. 끊임없이 대륙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다. 참혹한 살육의 만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인 셈이다. 세계 최대국가인 중국도 북한 편들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경제적 예속이 심하니 무어라 강하게 탓하지도 못한 것 같다.

이러다가 우리가 혹시 정치적으로 섬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미국에 의지할 수 없고, 그렇다고 북한 편만 들고 있는 중국에 추파를 던지기엔 더욱 그렇다.

송호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구한말의 암울했던 시기와 비슷하다고 한다. '정치·경제적으로 한국을 키운 20세기 패러다임은 끝났다. 산업화 세력이 자랑하는 성장엔진은 구닥다리가 됐고, 민주화 첨병이던 재야세력은 기득권집단이, 강성노조는 이익집단이 됐다. '사람투자'에서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도 내팽개쳐 졌다.

연대와 신뢰를 창출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사회투자의 요체이거늘, 개인주의와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현실을 부추기고 방치했다. 양극화와 격차사회의 행진을 막지 못했으며, 사회조직은 승자독식을 허용했다.'

그는 우리의 초라한 자화상을 냉철히 인정하자고 한다. 미래가 막막한 사회는 시민윤리와 공동체정신이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 주장만이 넘치는 사회에서 누가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을 걱정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래란 정말 없고 어렵다는 것일까. 수출은 늘고 외화는 쌓여 있다고 한다. 어렵지만 우리 사회엔 오히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세밑에 미담기사가 줄을 잇는다.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든 우석훈은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일그러진 욕망으로 빚어진 시장 만능시대를 지적하고, 한국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희망찾기를 제안한다.

돈으로 줄 세우고, 비용 효율로만 재단하여 사람을 제거한 탓에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한다. 또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고, 근본을 외면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강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생각할 때에야 비로소 희망이 보인다 하였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며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고, 희망인지 찾아나서야 할 때이다. 현재의 상황을 냉정히 성찰하며 새로운 꿈을 찾아야 한다. 희망을 말해야 희망이 생기게 마련이다.

의료칼럼

# 수술만큼 중요한 성형 후 관리

이 상 혁
SM美성형외과 원장

겨울은 성형에 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계절이다. 성형이 맘에 들려면 당연히 수술이 잘 돼야한다. 하지만 수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회복기간 중 관리이다.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역시 부기 관리이다. 생애 첫 성형은 대부분 눈 수술부터 시작해 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젠 가장 흔한 성형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얼굴의 중심이기에 수술 후 부기를 빨리 가라앉히고 멍도 빠르게 없애야 한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노력을 들여 관리를 해줘야 빨리 좋아진다. 수술 직후에는 병원에서 주는 아이스 팩을 이용해 냉찜질을 해줘 혈액순환이 잘되게 해 부기가 더 이상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냉찜질은 주로 수술 후 초기에 해주는 것이 좋으며 약 2주 정도 한다. 따뜻한 온찜질은 부기를 빼는 작용을 하는데 냉찜질로 부기 진행을 막고 이후 온찜질로 부기를 제거해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쌍꺼풀 수술 후에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려 얼굴에 피가 몰리게 되면 수술 부위가 더욱 부어 부기가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얼굴이 심장보다 높이 위치하도록 하고, 수면시 베개를 높게 베고 자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연스럽고 예쁜 가슴을 원한다면 마시지는 필수이다.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확대 수술의 경우 수술 후 4일 정도면 일상적인 업무는 가능하나 본인의 가슴처럼 자연스럽기를 원한다면 마사지는 꼭 해주는 것이 좋다.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수술이 70%, 수술 후 관리가 30%라고 할 정도로 수술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 마사지를 시작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노력한 만큼 자연스런 가슴을 얻을 수 있다.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구형구축(수술 후 통증 및 가슴이 딱딱해지는 증상)을 막기 위해서도 마사지가 효과적인데 일반적으로 하는 마사지와는 다르며, 보형물의 방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가슴을 들어서 힘을 실어 상하좌우로 움직여 준다. 손으로 하는 마사지 이외에 고주파나 엔더몰로지 같은 기계요법을 병행한다면 탄력과 리프팅에도 도움이 된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수술 후 아름다운 가슴과 부드러운 촉감을 위해 꾸준히 해주면 좋다. 반면 수술 후 절대로 가슴 마사지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복부·허벅지 등의 군살에서 잉여지방을 채취해 가슴에 이식하는 자가지방이식 가슴 성형이 바로 그것이다. 지방이 잘 생착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속옷 착용은 금물이며, 다이어트도 삼가야 한다.

수술 없이 예뻐지는 쁘띠성형은 나이를 불문하고 인기이다. 수술로 인한 큰 부담은 없지만 필러나 보톡스 시술에도 관리가 필요하다. 필러 시술 후에는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더운 환경은 피하고, 술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술 직후에는 약간의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1~2일 내에 좋아진다. 필러시술 직후 1주일 동안은 과도하게 시술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를 피해야 하며, 코에 시술받은 경우 안경을 쓰거나 엎드려 자는 것은 피해야 한다.

레이저 시술 후에는 피부가 매우 예민한 상태이므로 피부에 자극을 주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인데 건조해지지 않도록 재생크림은 기본이고 수분 크림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 얼굴을 심하게 문지른다든지 얇게 떨어져 나가는 각질을 없애기 위해 각질 제거제를 쓰는 것도 금하고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름 같은 뜨거운 햇살은 아니더라도 피부가 약해져 있으므로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한다.

기고

# 지방공기업 '성과급'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나 석 주
광주도시철도공사 전략기획처장

요즘 '공기업 개혁'이 화두다. 연일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 사례 등이 신문을 채우고, 개혁을 요구하는 날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기업에 몸담고 있는 필자가 읽어봐도 한심스런 사례들이 한 둘이 아니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없고 허탈할지 짐작이 간다.

사실 이러한 흥청망청한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신의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란 말까지 생겼을까. 과장된 부분도 있긴 하나 반성할 부분이 더 많다.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부른 사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성해야 할 것이다. 일부의 방만한 공기업 때문에 다수의 건실한 공기업들이 함께 비난받는 억울함이 있지만, 이 역시 결국은 우리 공기업 모두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물론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이슈가 되는 '성과급'이다. 흔히 '성과급' 하면 민간기업의 그것, 즉 기업의 초과 이익금 중 일부를 보수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이른바 '보너스'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우리 광주도시철도공사처럼 이른바 적자 나는 공기업이 성과급을 받는다는데 대해 많은 시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성과급 제도는 일반 사기업의 그것과는 다르다. 지난 199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재원 마련이 시급했던 안전행정부가 공기업 직원의 급여성격인 '정근수당'을 없애고, 이를 재원으로 해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성과급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즉 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둔 '급여'를 재분배하는 개념으로, 민간기업의 성과급과 이름만 같지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이다.

기본적으로 성과급 제도는 옳다고 생각한다. 일을 잘 하나 못하나 항상 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 아닐까. 경영혁신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낸 공기업에는 그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필요하다. 단지,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낮은 원가로 최고의 서비스재화를 창출해내야만 하는 그 속성상 단순한 수익성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성과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어찌 됐건 성과급에 대한 논란은 무엇보다도 공기업 경영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시민의 걱정이 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우리 공사를 비롯한 광주시 산하 공기업들은 건전경영과 책임 있는 공적서비스로 좋은 평을 얻고 있으나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최근의 공기업 개혁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기업의 보수와 복지 등은 물론 부채 책임 소재까지도 명확히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할 양상이다. 기업적인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운용에도 많은 통제가 가해질 듯하다. 공익이 최우선인 공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공사·공단의 미래와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본다. 시민들의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변화와 쇄신을 가해야 할 것이다.

외부 환경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혜안과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리는 기업에 돌을 던질 시민이 어디 있겠는가. 시민의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공기업 스스로의 뼈아픈 자구노력밖에 없다. 세상은 급박하게 변화하는데 한없이 공익이라는 우산 속에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스스로 자신의 벽을 깨는 우리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만이 시민들의 마음을 녹이고 더 큰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정부 대처 너무 미흡

신종범죄 보이스피싱이 나날이 진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대응이 이에 미치지 못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처럼 신종 범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도 당국의 대응태세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 대처방식도 당국 따로, 사업자 따로 식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북한 장성택 처형이 국민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등장,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돌잔치 문자사기, 법원등기, 우체국 택배에 이어 최근에는 북한 장성택의 처형 동영상 보기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변경과 관련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온 장성택 처형 동영상 보기 주소를 클릭했더니 25만원이 소액결재됐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신종범죄 보이스피싱이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수준을 넘어 자칫 인터넷 관련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불신까지 부를 우려가 있다. 게다가 수법이 교묘해져 개인이 주의해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문제는 신종범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태도다. 피해자가 보기에는 방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피 같은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이다.

이런 신종사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다. IT강국이란 말이 부끄러울 정도다.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도리고 의무다.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라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갈수록 혀를 내두를 신종범죄 보이스피싱의 피해대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라 생각이 든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양림로

社 說

# 해양기상 관측, 어민에게 외면 받아서야

기상청의 해양기상 관측이 부실해 어민이나 관련 업계의 불신이 높다고 한다. 바다를 터전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양기상 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관측장비 부족 등으로 불신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서·남해에서 운용 중인 해상관측 장비는 21대에 불과해 대부분 파고와 수온, 수위 등 해상기상을 개별적으로 관측해 제공하는 수준이다. 정확한 바다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 기상자료 수집 장비는 신안 앞바다·칠발도, 진도 해수서, 여수 거문도·간여암 등 5대에 불과해 결국 장비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아날로그 기상청'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기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해양기상이 변화무쌍하지만 예보는 기초장비에만 의존하고 있어 수요자들이 기상청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남 해역 조업현장에서 어민들 상당수는 기상청 예보보다 운항 중인 동료들과 해운조합 측 기상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3면이 바다로 해양대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정작 가장 초보적인 바다 기상도 제대로 관측하지 못해 외면받고 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고기잡이와 선박 운항시 정확한 기상 파악은 필수사항이다. 잘못된 날씨 정보 때문에 작업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가 따를 것이고, 왜곡된 예보만 믿고 배를 움직였다가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상청 등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한 해상 날씨정보 파악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혹여라도 육상의 기상관측이 잘못될 때 항의가 빗발치는 것에만 신경 쓰다가 바다 기상 예측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날로그란 말인가.

# '기부 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연말 되길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 등을 수집해 생활하는 70대 할머니가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3년째 기부를 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 양림동에 사는 지미진자(72) 할머니는 지난 2010년부터 매달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비 35만 원 중 월세와 전기요금, 가스비를 제외한 나머지와 폐지를 모아 판 돈을 합쳐 지역주민센터에 기부하고 있다.

지 할머니는 "사회복지관에 다니다 보니 나보다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나도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기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 할머니는 "불우이웃을 돕는 게 큰 행복"이라며 "죽기 전까지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말연시가 되면 지 할머니와 같은 온정의 손길은 끊이지 않는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거금을 성금으로 내놓는 '얼굴 없는 천사'도 이제는 큰 화제가 아니다. 50대 남성이 담양군에 1~2억 원을 내리 기부하는가 하면 2년 전 익명의 한 독지가는 보성군에 장학금 3억 원을, 영암군에서는 한 남성이 익명으로 3억30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광주 북구에서는 명절이면 과일을 기탁하는 '과일 기부천사'가 있고, 순천과 완도, 영광 등지에서도 매년 쌀과 금품을 보내는 독지가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불우이웃을 위해 나누는 기부나 봉사활동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선행'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들의 온정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얼굴을 내밀기 위한 기부나 사회봉사활동이 아니라 진정성이 묻어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있기에 각박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건강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부 바이러스'가 확산돼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無 等 鼓

# 지키지 못한 약속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제 일주일여 남은 2013년의 끝자락에서 신년에 세웠던 계획을 떠올리면 응답하는 단어는 '작심삼일', '후회막급'이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직장인 539명을 대상으로 '올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세운 목표 중 가장 많이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남성은 금연, 금주, 여성은 다이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은 경제관리(저축, 쇼핑 줄이기)와 경력관리( 승진, 이직)가 뒤를 이었고, 여성은 외모관리에 이어 경제관리, 개인 여가(해외여행, 취미생활) 순이었다.

특히 연령이 높을 수록 건강관리 소홀이 아쉽다고 했으며, 외모와 경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여를 불문하고 많았다.

다가오는 2014년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목표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관리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내년부터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겠다고 답변해 경기불황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은 노후에 대한 대책마련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제관리에 이어 남성은 건강관리와 경력관리를 내년 목표로 많이 꼽았으며, 여성은 외모 관리와 경력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대답이 주류를 이뤘다.

금연, 결혼, 영어회화 수강, 자기계발 등 연초의 다짐은 이렇게 12월이 되면 후회로 돌아 오는 경우가 많다. 1년치 수강료를 미리 내고, 결연한 의지로 자기계발을 위해 시작하지만 일주일을 못 넘기고 생돈만 날린다.

물론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100% 달성한 후 다가오는 신년을 벅찬 희망과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후 쓰라린 좌절감을 곱씹는 이들은 내년에는 절치부심 똑같은 실수를 반복치 않아야 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으리라.

다가오는 2014년엔 2013년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고,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바란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 |
|---|---|---|---|---|---|
| 편집국안내 | | 경 제 부 | 2200-663 | 경영지원국 | 2200-515 |
| 〈대표 FAX | 222-4918〉 | 문화생활부 | 2200-661 | 문화사업국 | 2200-541 |
| 편 집 부 | 2200-649 | 여론매체부 | 2200-621 | 〈F A X | 222-8005〉 |
| 정 치 부 | 2200-612 | 체 육 부 | 2200-697 | 〈F A X | 222-0195〉 |
| 〈대표 FAX | 222-4918〉 | 사 진 부 | 2200-693 | 광고마케팅국 | 227-9600 |
| 사 회 부 | 2200-616 | 조 사 부 | 2200-571 | 독자서비스국 | 2200-551 |
| 〈대표 FAX | 222-4267〉 | | | 〈F A X | 227-9500〉 |
| | | | | 〈F A X | 227-9500〉 |
| | | | | 디자인실 | 2200-536 |
| | | | | 서울지사 | 02-773-9331 |
| | | | | 프로젝트팀 | 2200-555 |
| | | | | 〈F A X |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